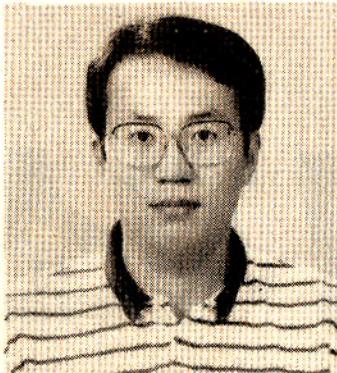




##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카나다 進出戰略

### 못할 짓 하기(?)

김영수 (경제학박사)



#### 궂은 일과 몹쓸 짓②

原罪를 지은 조상을 가진 우리가 원천적으로 가진 그러한 수요는 누르면 누를수록 오히려 더욱 강해지는 법이다. 그리고, 이처럼 사회에 그 수요는 확실히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그 수요가 공급되지 못하는 것, 바로 그 곳에 진출하여 그 확실한 수요를 확실하게 충족시켜주면 사회는 거기에 대하여 '못할 짓 프레미엄'을 지불하게 되어있다. 그것은 경제 철칙이다. 수요는 되어 공급의 창출과정에 제한이 있는 바로 그 서비스들을 공급하게 되므로 소위 독점 프레미엄을 받게 되어있는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일종의 독점인 것이다. (예를 들어 마약거래도 누구나한다고 하면 그 마진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면 누구나 필자의 이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마약거래를 모두 합법화 시켜버렸다. 당연히, 마진이 떨어졌다.) 얼마 전의 이 칼럼에서는 공권력이 지켜주는 독점을 논하였지만, 여기서는 '차마'가 지켜주는 독점, '더러워서'가 지켜주는 독점, '법이 무서워서'가 지켜주는 독점,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지켜주는 독점, '체면때문에'가 지켜주는 독점, '배웠기 때문에'가 지켜주는 독점, '집안 체통상'이 지켜주는 독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못할 짓'의 범주에 드는 일을 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프레미엄은 도덕적 우월감, 성취감, 명예, 권력, 교회 집사직 등등의 추상적이고도 비금전적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 금전적 형태로 精製되어, '돈' 그것도 '현금'이라는 형태로, 그야말로 赤裸裸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당연히, 그런 식으로 버는 돈이 많은 것이다. 어느 특정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특정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존경은 커녕, 욕은 욕대로 바가지로 먹

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사회가 금전적인 補償이나마 두둑하게 支拂하여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공평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자! 여기서 분명히 또 한 번 밝혀둔다. 필자는 돈버는 방법으로서 마약의 생산과 거래, 유곽 운영, 도박장운영, 인신매매, 密酒 담그기, 환경오염규정 어기기, 포르노 산업 따위를 권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필자가 그러한 행위패턴을 논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돈번 사람이 통계적으로 많다는 이야 기이고, 거기에는 經濟學적으로 충분히 納得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문제성이 많지만 경제학적으로 납득이 가는 그려한 이유를 잘 공부하면, 우리 마음약한 衆生들의 돈벌 기에도 응용할 건데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자! 무슨 묘한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계속 읽어 보자!

첫째로, 원강 高尚하셔서 '차마 못할 짓'이 많은 분들은 돈 벌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체면때문에', '집안 분위기상', '소살 스테이터스上', '친구들 보기 창피하여서', '화벌이 있기 때문에' ...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많은 가능성 을 일단 '돈벌이' 고려의 대상에서 除外하고난 이후에 직업이나 사업체를 '짊잖게' 구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나는 리어카는 죽어도 못끈다. 나는 적어도 짐잖게 넥타이 메고 일해야하는 소위 와이트 칼라 아니면 적어도 하이칼라 직장이어야 그 직업을 가지겠다'라는 결의가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 바로 그런 곳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월급도 작고 가게라고 하여도 수입이 짭잘하지가 못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이 사회는 아주 냉정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제 사회라는 것은 이러한 어리광적 態度를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이 북미사회는 너 돈으로 받을래? 아니면 넥타이로 받을래?를 분명히 묻고, 거기에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에 따라 所願그대로 매정하게 執行하여주는 것이다. 넥타이를 메고 일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에게는 이 사회는 '돈'으로 보상을 하여 주려다가도, '넥타이를 멀수 있는 권리'로서 '돈' 대신 보상을 하여준다는 소리이다. 당연히 받는 '돈'의 액수는 작은 법이다. 어느 업체나 직장이 귀하의 체면도 高尚하게 세워주고, 집안 분위기도 맞추어 주고, 소살스테이터스도 올려주고, 주위 사람들의 존경도 받도록 하여주고...하면서 그 직종이나 업체가 돈까지 여전히 잘벌리는 곳일 가능성은 아주 작다는 것은 귀하게서 각오하셔야 한다는 것이다. 돈 잘 못버는 것만 빼놓고는 참 좋은 직업의 대표적인 예가 교수라는 직업이다. 한국

이나 카나다에서는 교수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존경을 하여 준다. 어데가서도 교수라고 하면 웬만하면 특별대우를 받는다. 무슨 이유에선지는 몰라도 특히 한국의 술집에 가면 그렇다. 또, 교수라는 직업은 1년에 적어도 5개월은 방학이라서 집에서 평평 놀려면 퍼지게 놀 수도 있다. 주중에도 2-3번씩 골프를 칠려면 칠 수도 있다. 시험기간에 놀고, 채점한다고 놀고... 거기다가, 학교에서 사무실 대주고 연구비 주고, 문방용품 공짜로 대주고, 컴퓨터는 신형이 나올때마다 척척 사주고, 그리고, 생명보험, 치과보험, 학교 체육관 이용권리등, 소위 프린지 베네피트가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6년만 사고 없이 일하고 나면, 1년씩은 유급휴가를 준다. 거기다가 작업분위기도 유쾌하기 짹이 없다. 원래 대학이란 곳이 다 경치들이 좋은 곳에 있어서, 그 좋은 곳에 턱 자리 잡고, 무슨 직장상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좋아하는 책을 자기 스케줄에 따라 보며 자기 좋아하는 연구라는 것을 하는데, 필자도 1-5년 하여 보았는데, 그야말로 낙원이 따로 없다. 당연히 교수라는 직업은 월급이 짜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렇게 비경제적인 베네피트가 많기 때문에, '나 돈 필요 없어요. 존경만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든다. 당연히 월급을 아주 작게 주어도 된다. 심지어는 몇몇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주 안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필자 김영수 / Cranewood Corp 대표 682-8686-